

광주일보사 초·중고생 뉴질랜드 여학연수 참가자 좌담회

“영어와 자신감 두토끼 잡았어요”

광주일보사는 지난달 실시했던 뉴질랜드여학연수(2월3일~3월2일)의 좌담회를 지난 13일 광주일보사 15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연수 학생 3명과 그들의 부모들을 초청해 연수 소감과 함께 현지에서의 생활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이번 좌담회에는 강운정(석곡중 3년)양과 아버지 강철수씨, 이우찬(봉선중 1년)군과 어머니 김미경씨 그리고 황하연(장흥초 6년)양과 어머니 하현진씨 6명이 참석했다.

한달 사귀 외국 친구 헤어질땐 뭉클 소극적이었던 아이 적극적으로 변해

-이번 여학연수를 다녀온 소감은?

▲강운정=정말 재미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가고 싶다. 뉴질랜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이우찬=힘들 때도 있었지만 즐거운 일이 더 많았고, 외국인과의 대화하는 감을 확실히 잡았다.

▲황하연=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같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다.

-연수 마치고 귀국 후 자신의 생활태도나 공부방법이 달라진 점이 있나?

▲황하연=연수 가기 전에는 소극적이고 소심했던 성격도 혼자서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다 보니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했고 방 청소도 스스로 하는 습관을 갖게됐다.

▲강운정=뉴질랜드에서는 회화가 많이 늘었다는 느낌이다. 또 말하는 속도나 발음도 좋아졌다.

-뉴질랜드 연수에서 가장 유익했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강운정=현지 학교 수업이 매우 유익했다. 선생님과의 자유롭게 얘기를 주고받으며 수업하다보니 한국보다 15분~30분 더 하는 수업인

데도 ‘벌써 끝인가?’ 할 정도로 재미있었다.

▲이우찬=가장 유익했던 프로그램은 미미킹(mimicking·영화를 보고 대사를 따라하는 것)수업이었고, 이 프로그램에서 나는 ‘Incredible’이라는 영화의 어느 한 부분을 더빙했다.

▲황하연=방과 후에 현지 교육원(NZELS) 선생님들, 그리고 같은 한국 친구들과 같이 했던 수업도 유익했던 것 같다.

-뉴질랜드 투어 중 기억에 남는 곳은?

▲황하연=로토루아 1박2일 여행을 떠났을 때 가장 즐거웠고 기억에 남는다.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하는 번지점프를 볼 때 아찔했다.

▲이우찬=나도 로토루아에 갔던 것이 가장 재미있었다. 거기에서 폭포도 보고, 삼림욕·수영도 하고, 온천에도 갔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홈스테이에서 현지 가족들과 어떻게 지냈는가?

▲강운정=홈스테이 가족들은 늘 친절했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셨다. 첫 1주일만은 우리나라와 식사가 달라서 신기하고 맛있었는데, 2



광주일보가 실시했던 뉴질랜드여학연수 좌담회가 지난 13일 광주일보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는 연수자 3명과 학부모 3명이 참가해 한달간의 연수 소감을 얘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째부터는 한국 밥이 먹고 싶었다.

▲황하연=홈스테이집 아이들 릴리와 달리와는 잘 지냈으며 작별할 때는 그간 정이 들었던지 코끝이 찡했다.

-여학연수가 국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부분일까?

▲강운정=낯설었던 외국인 또래들과 지내다 보니 국내 친구들은 더 적극적으로 사귀 수 있을 것 같다.

▲이우찬=우선 영어에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황하연=영어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스스로 공부 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수 후 자녀들이 크게 달라진 점은?

▲하현진(황하연 어머니)씨=연수에서 돌아오자마자 학급 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말을 듣고 내심 놀랐다. 평소 낮가림이 있고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스스로 자신감을 가졌다는 게 연수 후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다.

▲강철수(강운정 아버지)씨=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세계를 보는

시야도 많이 넓어진 것 같다. 또 대인관계도 한층 더 유연해진 것 같다.

▲김미경(이우찬 어머니)씨=집안 일에 적극적이고 형제들에게 양보하는 등 대견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귀국 한 다음날 처음 가는 중학교에 쉽게 적응한 것도 연수에서의 활발한 덕분인 것 같다.

-자녀들의 현지 소식을 어떻게 접했는지?

▲하현진=처음에는 메일로 개별적인 소식을 전해주었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뒤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일 매일의 활동과 아이들의 생활을 알려줬다.

▲김미경=궁금한 점이나 부탁드릴 일을 이메일로 문의했을 때 거의 실시간 답변을 받았다.

▲강철수=예,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사진과 메일을 보내주었다.

-현지 연수생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김미경=매우 만족한다.

▲하현진=연수 기간 중에 뉴질랜드 남섬에서 지진이 났었을 때 광주일보사가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애써준 점에 더욱 신뢰를 갖게 됐다.

▲강철수=매우 만족스럽다.

/정리=서승원선임기자 swseo@

전남대 입학사정관 준비 프로그램 인기

입학관리본부 개발...200개 교교 참여 신청

전남대학교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 일선 고등학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전남대 입학관리본부는 올해 초 진로·진학 가이드라인 ‘꿈지락 꿈틀’ 워크북을 개발·제작, 외부 공개 한 달 만에 200개 고등학교가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는 기록을 세웠다. 또 대학교육협의회 우수사례로 뽑혀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에게 소개된 이후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타대학들의 벤치마킹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 책은 ‘진단·탐색·설계·실행’ 등

4단계로 나누어 고등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전공을 탐색하며 체계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워크북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과 상관없이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선호, 또는 점수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1단계 ‘진단’편에서는 진로탐색 검사를 통해 자신을 ‘실제형·탐구형·예술형·사회형·기업형·관심형’ 등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객관적으로 체크해보고, 2단계 ‘탐색’편에서는 재미·능

력·자기성장·돈·시간적 여유 등의 조건을 따져보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는다. 3단계 ‘설계’편에서는 3년·7년·10년·15년 단위의 인생설계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 개발 계획표를 작성하고, 4단계 ‘실행’편에서 자기소개서, 독서·봉사·동아리 활동 등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며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

이 워크북은 순서와 구성, 내용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자신을 진단·탐색·설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제작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일본 돕기 호남대학교 슈퍼스타 총학생회(회장 정종혁)가 관산캠퍼스 통학버스 승차장 등에 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함을 설치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성금 모금에 들어갔다. 호남대도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때도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호남대 제공>

조대부중 ‘토셀’ 지정 교육기관 선정

영어능력인증시험...광주 초중고서 처음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교장 김갑진)는 “광주 초·중·고를 통틀어 처음으로 EBS TOSEL(토셀) 지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토셀은 대학수학능력(수능)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한 교수들이 개발한 영어능력인증시험으로 문자언어(읽기·쓰기)와 음성언어(말하기 능력·듣기능력) 능력을 평가한다.

조대부중은 201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전형에 반영될 예정인 ‘국가영어능력평가’ 대비를 위해 토셀 인증시험을 특색사업으로 추진, 지정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고려대와 민족사관고 등은 토셀인증성적을 입학전형에 반영하고 있다.

조대부중 학생들은 주 2회 영어듣기 방송청취, 방과후 학교 수업에서 토셀 인증시험을 준비하는 등 폭넓은 영어학습 기회를 갖게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대 산업인력교육원

스피치리더십 수강생 모집

광주대 산업인력교육원이 스피치 리더십 회고위과정 개설하고 오는 4월 5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과 협상리더십이 갈수록 중시되면서 다양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 및 창의적 활용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강의는 스피치학회 국내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가 맡는다.

수강신청 문의는 062-670-2863.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www.musicalyounga.com

CAST 송창의, 윤도현, 리 사, 임병근, 허 규

뮤지컬

광화문연가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KBC

| 주 관 | KBC미디어콤플 · 영무엔터테인먼트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매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Daum 뮤지컬 광화문연가

이제 모두
세월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갔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